

컴퓨터 박사 성기수

한국화보 91년 7월

나지막하면서 친근한 말씨, 짧은 상고머리 스타일에 미소가 배어 있는 소박한 표정. 하버드 대학 개교 이래 최초로 2년만에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천재라기보다는 평범한 회사원 같은 첫 인상의 성기수 박사는 첨단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에 힘쓴 우리나라 컴퓨터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던 1967년 전자계산실장에 취임한 성 박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업적은 상당하다. 공공요금의 전산화, 과세행정의 전산화, 학력고사 자동채점 등 20여년간 그가 한 일은 허다한데 특히 88년 서울올림픽 때 장외 금메달이라고 칭찬받은 올림픽 전산화 종합시스템(GIONS)은 성 박사 자신도 제일 먼저 꼽는 우리기술의 쾌거이다.

그러나 성기수 박사는 원래 컴퓨터가 아닌 기계공학을 전공했다고 한다.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독자적으로 그가 개발해낸 로켓탄도의 조사공식이 미국의 항공우주과학지에 실려 하버드대학에 전액장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또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선형자기유체역학의 일반이론'은 당시 전기자기 및 유체역학적 현상에 대한 최초의 일반이론으로 화제가 되어 모교인 하버드대학과 국방관계연구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잇달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모국에서 그의 지식을 사용하길 바랬고 그러기 위해서 당시의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학문인 항공공학보다 컴퓨터쪽이 고국의 경제나 행정에 쓸모있으리란 생각을 했다고 한다.

60년대 초반인 당시는 모든 해외주둔 군인들은 2년내에 귀국해야 했는데 당시 교관이었던 성 박사는 그 2년이 지나기전에 석·박사 학위를 모두 따낸 것이다. 이는 하버드대학 최초의 일였고 아직까지도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성기수 박사가 컴퓨터를 만난 것은 미국에서였고 그때의 신기했던 느낌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건너가 처음 탁상계산기를 써보니 참 편리하더군요 그것을 보고 한 미국친구가 옆방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가보라고 합니다. 들어 가보니 옷장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하면 몇백년 걸릴 일을 순식간에 혼자 해치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와의 첫만남에서 성 박사는 반나절 동안에 그 컴퓨터의 언어와 문법을 터득해냄으로써 둘은 서로 대화가 통하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성 박사와 컴퓨터와의 이 첫 만남은 또한 우리나라가 컴퓨터와 만나는 예고이기도 했다. 고국에 돌아온 성 박사가 지금의 시스템공학연구소의 모체가 된 전산연구실의 초대 실장으로 부임했을 때 연구실 요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71년 그의 첫번째 작품인 전화요금고지서 전산화시스템을 개발했고 그후 예비고사자동채점 등 많은 시스템을 개발했다. 본격적인 컴퓨터 시대가 되자 그에게는 국내외의 많은 기업에서 연구제의를 해왔다고 하나 그럴 때마다 성 박사는 반드시 시스템공학연구소와 용역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연구제의를 수락해왔다고 한다. 이런 수입으로 연구소의 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고용이 늘어나 우수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큰 보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좀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해 민간 연구소를 차릴 생각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 연구소의 장이었다면 여러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발언을 행정관료나 정치인에게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일례가 바로 서울 올림픽 전산화 종합시스템이라는 것.

81년 바덴바덴에서 서울이 제24회 올림픽개최국으로 지정되자 성 박사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우리 힘으로 전산망을 만들겠다고 제의했다. 물론 여론은 도입쪽으로 기울고 있었다고. 그러던 중 노태우 당시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불과 3개월 앞둔 83년 전국체전을 시험삼아 해보겠냐고 제의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 박사는 해내겠다고 약속했고 국내 시설만으로 올림픽전산망의 골격을 갖추어냈다. 서울올림픽 전산망은 중앙컴퓨터가 고장나도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경기장의 컴퓨터가 전자계측장비와 접속해 경기결과를 자동입력하는 분산식으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우수하여 장외 금메달감’이라고 평가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는 시스템 공학연구소가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초중고에서도 많은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는 등 우리나라에도 정보화시대로의 진입이 점차 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 컴퓨터문화가 정착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라고.

“일본에는 슈퍼컴퓨터가 약 2백여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스템공학연구소에 단 한대가 있을 뿐이죠. 이 한대를 각 연구소나 대학에서 함께 쓰는 실정이니 아직 멀었죠. 물론 앞으로 10년내에는 우리도 이런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될텐데…”

가격이 약 2백억원이나 한다는 이 슈퍼컴퓨터는 계산속도가 빠르고 주기억 용량이 큰 컴퓨터로 기초과학에서 첨단 기술개발에까지 폭넓게 활용된다고 한다. 얼마전에 기아산업에서도 한대를 도입했다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에 두대가 있는 셈이다.

성 박사는 정보화시대에는 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 분야가 주축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현재 성장이 빠른 분야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그래서 성 박사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번호판자동인식 시스템이나 지문인식시스템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끈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그로 하여금 컴퓨터에 관한 정열을 식지 않게 하고 이런 정열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컴퓨터 연구도 밝아 보인다.